

# 3월 제한급수 코앞인데... '물 절약' 절반도 동참 안했다

### 광주시 수돗물 요금 감면정책, 지난해 11월 전년보다 4억5천만원 줄어 가정용 아파트 절수 참여 높아...요식업·목욕탕 등은 오히려 사용량 증가

광주시가 오는 3월로 예고된 제한급수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요식업소와 목욕탕 등에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휴무제 도입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여전히 일반가정의 55%, 요식업소의 60% 등 절반이 넘는 시민이 사실상 절수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뭄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수돗물 요금 감면정책을 시행한 결과,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은 감소했으나 상업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놓은 '2022년 11월 사용분 수도요금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수돗물 절감 수용가(수전)는 전체 13만 3302수용가 가운데 43%인 5만 7201수용가로 나타났다.

2022년 11월 한달 간 총 수돗물 사용량은 전년인 2021년 동월 1367만㎥보다 2% 줄어든 1339만㎥

로 집계됐으며, 급수업종별로는 가정용 3.2%, 산업용 6.2% 등을 각각 절감했다.

반면 상업용은 절감은커녕 오히려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상업용 중 요식업소 등이 주로 포함된 일반용의 수돗물 사용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 욕탕용은 5만7000여㎥에서 29.6%나 급증했다.

수돗물 절감에 따른 급수업종별 감면액도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한달 기준 전체 감면액은 총 부과금 86억 2439만원의 5.2%인 4억 505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순수 요금 감면액(급수업종별) 기준으로는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욕탕용 순이었다.

가장 먼저 전체 수돗물 사용량의 68%를 차지하는 가정용은 전체 7만8234가구 중 45%인 3만 5013가구가 절수에 성공해 2020년 같은 달 사용량 941만㎥의 8%인 75만㎥을 절약, 2억 6925만원의 요금을 감면받는다.

특히 가정용 중 아파트는 77%가 참여해 전체 사용량의 6% 절감했으며, 단독주택은 44%가 참여해 11%를 절감했다. 기숙사, 10㎡ 미만 소규모 가게, 사회복지시설 등은 69% 참여해 8%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식업소 등이 주로 포함되는 일반용은 전체 5만 2873곳 중 40%인 2만1208곳이 절수운동에 참여해 전년 같은 달 309만㎥의 12%에 해당되는 37

만㎥를 절감하고, 1억 4519만원을 감면받게 됐다.

욕탕용은 121곳 중 32곳이 절수에 성공했지만, 전년 같은 달 사용량 5만7469㎥의 8%인 4547㎥를 절감하는 데 그쳐 겨우 98만원을 감면 받는다. 이 밖에도 제품생산 및 제조 기공에 사용하는 산업용은 2074곳 중 694곳에서 12%인 13만㎥를 절감해 3511만원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평소보다 20% 정도의 수돗물만 아껴주신다면 제한급수를 막을 수 있다"면서 "수도요금을 아끼면서 물 절약에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수돗물 요금 감면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섬 광역상수도 지원 재차 건의

### '가뭄 현장 방문' 한화진 환경부장관에 신속 추진 강조

전남도가 11일 가뭄 장기화로 제한급수를 하는 완도 보길도를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항구대적인 섬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완도군과 함께 재차 건의했다.

이날 한 장관은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등 관계자와 함께 완도 보길도를 방문해 지하저류탱 시범 가동 및 해수담수화 선박 운영 현황을 살폈다. 완도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노화·보길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금일·노화·보길·소안·넙도 등 5개 섬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 금일은 2일 급수 4일 단수, 노화·보길 2일 급수 4일 단수, 소안 2일 급수 5일 단수, 넙도 1일 급수 6일

단수 등을 실시중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가뭄 극복을 위해 완도군에 73억원을 지원하고 급수차 운영,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대형관정 개발 등 가뭄대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섬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항구대적인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11일 오후 광주 영주동 성당에서 엄숙하게 거행되고 있다. 광주교구장인 옥현진 대주교 집전으로 거행된 이번 서품식에서는 부제 2명이 사제서품을, 신학생 10명이 부제서품을 받았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경무관 승진 22명 중 12명이 영남 출신

### 이형석 의원 경찰청 자료

경찰청이 지난 3일 발표한 경무관 승진 예정자 가운데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무관 승진 예정자 22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무려 12명(5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이 고향인 승진 예정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명, 경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청권 출신이 5명(대전 2명·충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호남 출신은 영남 출신의 6분의 1수준인 2명이었고 서울과 인천 또한 각각 1명에 그쳤다.

이번 경무관 승진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 강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 경찰인사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 평가가 많았다.

이형석 의원은 "이번 경무관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기반인 영남권 출신 편중인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행안부 경찰국을 통해 소위 윤희관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0일 이뤄진 총경 인사에서도 특정 지역 편중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경찰 인사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건의한 '조선업 인력난 해소 대책' 법무부 반영

### 비자 요건 완화·외국인 고용 확대 등 제도 개선

전남도가 꾸준히 제기해온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비자제도 개선 사항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됐다.

선박 수주 호황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전남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전남도 건의로 반영된 법무부 제도 개선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완화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2년) 허용 등이다.

정부는 또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하며, 외국인력 도입 관련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을 1월 중 처리하는 등 고용추진 처리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

에 처리할 계획이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조선산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인력(E-7) 비자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대(내국인 근로자 대비 50%),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요건 완화(E-9 취업기간 5년 → 4년), 외국인력 적시 도입을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선업 사내협력사 병역 지정업체 선정 특례를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향2길3(서향동)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